

숫자로 증명된 박인비의 '컴퓨터 퍼트' 3~4.5m 거리 성공률 64%



**LPGA 평균 28%와 대조적
PGA 최고 김승도 41.12%**

'컴퓨터 퍼트'로 불리는 박인비(33) 퍼트의 정교함이 숫자로 증명됐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15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서 "박인비가 그린에서 얼마나 놀라운 퍼팅을 하는지 정확히 계량화했다"며 데이터를 소개했다.

LPGA 투어는 지난 6월 열린 미디어 챔피언십부터 선수들의 샷을 분석해 다양한 통계 자료를 수집했다. 'KPMG 퍼포먼스 인사이트'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축적된 KPMG 퍼포먼스 인사이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LPGA 투어 선수들의 3~4.5m(10~15피트) 거리 퍼트 성공률은 28%로 측정됐다.

남자 골프에서 같은 거리 퍼트 성공률은 30% 정도로, LPGA 투어 선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3시즌 동안 남자 골프에서 이 부문 정상에 오른 선수들의 성공률은 40~41%로 더 높았다.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3~4.5m 거리 퍼트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는 라인 김슨(호주)으로 41.12%를 기록했다.

그러나 박인비를 넘어서는 못한다. 박인비의 3~4.5m 거리 퍼트 성공률은 무려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비는 지난 6월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1라운드 18번 홀에서 약 30m(100피트)에 달하는 기적적인 버디 퍼트에 성공했다. 박인비는 이 퍼트로 1.7타를 번 효과를 냈다. 이는 이 데이터가 수집된 이후 최고 기록이다.

/연합뉴스



테니스컵이 열리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서 훈련 중인 한국 테니스 대표 선수단. /연합뉴스

한국 테니스 데이비스컵 17일 뉴질랜드와 격돌

한국 남자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단이 국가 대항 전인 데이비스컵에서 뉴질랜드와 맞붙는다. 박승규(KDB산업은행)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17일(한국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의 세계 테니스 명예의 전당 코트에서 데이비스컵 테니스 월드그룹 1회전(4단 1복식) 뉴질랜드와 경기를 치른다.

원래 이 경기는 뉴질랜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중립국인 미국으로 개최 장소가 변경됐다.

우리나라는 에이스 권순우(83위·당진시청)를 비롯해 남지성(341위), 이택희(367위·이상 세종시청), 정윤성(414위·의정부시청), 홍성찬(611위·세종시청), 송민규(복식 189위·KDB산업은행)로 대표팀을 꾸렸다.

이에 맞서는 뉴질랜드는 마이클 비너스(복식 19위), 마커스 대니얼(복식 42위)의 복식 상위 랭커들에 34세 베테랑 루빈 스테이덤, 핀 레이놀즈, 아이작 비크로프트 등이 나온다.

스테이덤과 레이놀즈, 비크로프트는 현재 랭킹이 없으며 레이놀즈, 비크로프트는 2000년생이다. 복식에서 뉴질랜드가 앞서지만 권순우가 단식 2개를 잡아주면 우리 쪽에 승산이 더 커진다. 3일 출국한 박승규 감독은 "권순우 외에는 잔디 코트 경험이 많지 않아 적응을 위해 일찍 미국에 왔다"며 "선수들과 잘 준비해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월드그룹 1회전 경기는 총 12개 매치가 열리는 데 여기서 이긴 12개국 가운데 랭킹이 높은 상위 8개 나라가 2022년 데이비스컵 파이널스 직전 단계인 최종 예선에 진출한다.

나머지 4개 나라는 11월에 2개씩씩 맞대결을 벌여 승리해야 최종 예선에 나갈 수 있다. 최종 예선에서 이기면 2022년 11월에 열리는 세계 16강 격인 파이널스에 진출한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 데이비스컵 상대 전적 4승 8패로 열세지만 최근 맞대결이었던 2018년 홈 경기에서는 3-2로 이겼다.

/연합뉴스

킵카 "우즈 메이저 15승 따라잡을 수 있다"

'메이저 사냥꾼'으로 불리는 브룩스 킵카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의 메이저 15승 기록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킵카는 15일(한국시간)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 다이제스트와 인터뷰에서 "메이저 우승 횟수는 내가 우즈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이제 서른 한 살"이라고 말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통산 8승을 거둔 킵카는 그 가운데 4승을 메이저에서 따내 유독 메이저 대회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2017년과 2018년에 US오픈을 2연패 했고,

그러나 킵카는 우즈와 나이 차이를 언급하며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메이저 우승을 하면 잭 니클라우스의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기록도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우즈는 1975년생으로 킵카보다 15살이 많고, 니클라우스가 보유한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은 18승이다.

킵카는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건방지고 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이 뿐"이라며 "만일 그런 생각도 없다면 대회에 나갈 이유가 없지 않나"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2등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스포츠는 승자 아니면 패자일 뿐"이라며 우승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류은희, 헝가리 리그 이적하자마자 맹활약 유럽 챔스리그 1라운드 '최고의 골'에 선정

한국 여자 핸드볼의 간판 류은희(31)가 헝가리 리그로 이적하자마자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올해 헝가리 교리 아우디 ETO KC에 입단한 류은희는 13일(한국시간) 헝가리 죄르에서 열린 2021-2022 유럽핸드볼연맹(EHF)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1차전 바이퍼스(노르웨이)와 경기에서 2골을 넣고 팀의 35-29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특점은 많지 않았지만 EHF가 조별리그 1차전에서 나온 골 가운데 '톱5'를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류은희의 골이 1위에 올랐다.

류은희는 이날 팀이 33-25로 앞선 경기 종료 약 4분을 남기고 위력적인 왼손 중거리포를 터뜨렸고 이 득점이 2021-2022시즌 EHF 챔피언스리그 여자부 조별리그 1라운드에서 나온 가장 인상적인 골로 뽑혔다.

류은희는 2020-2021시즌 파리92(프랑스)에서

챔피언스리그에 뛴 경력이 있고, 올해는 헝가리 클럽으로 옮겨 활약 중이다.

EHF 챔피언스리그는 유럽 명문 구단 16개 팀이 출전해 유럽 최강 클럽을 가리는 대회다.

류은희는 15일 열린 헝가리 국내 리그 바사스 SC와 경기에도 출전해 팀의 41-21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 후 교리 ETO KC는 소셜 미디어에 경기 결과를 전하면서 류은희의 슈팅 장면을 함께 실었다.

류은희가 팀에 합류한 8월 말에는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류은희의 한국어 인터뷰 영상과 이를 번역한 스크립트를 게재하는 등 류은희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분위기다.

류은희는 당시 인터뷰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에 왔는데 목표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꼭 이루고 싶다"며 "구단과 팀



홀 팬들 앞에서 인사하는 류은희. /연합뉴스

동료 선수들이 많이 도와줘서 적응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은희가 속한 교리 ETO KC는 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5회 우승한 유럽의 대표적인 명문 구단이다.

류은희는 현재 요르단 암만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선수권대회 중반 이후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내 공 어디 갔어? 15일 경북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1 MG새마을금고 KBL 컵대회 예선 창원LG 대 서울SK 경기. SK 허영일이 상대 수비에 공을 놓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보이스 |
| 2관 | 보이스 |
| 3관 |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
| 4관 | 기적 |
| 5관 | 기적, 보이스, 인질 |
| 6관 | 기적 |
| 9관 | 극정판 핑구는 못말려 격돌! 뇌서양국과 알츠하이머의 용사들 말리그먼트 |
| 7관 | 씨네커를 기적, 모기다슈, 인질 |
| 8관 | 씨네커를 극정판 포켓몬스터: 정글의 아이, 코코 모기다슈, 스피릿, 싱크홀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 11시 음악산책 6
김가온의 Thanksgiving Day
일시: 2021. 09. 24.(금)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2

제3회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일시: 2021. 10. 01.(금) ~ 10. 05.(화)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5, 8237

즐거움
문화산책